

## \*\* 근대주택의 색채디자인 특성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of the Color Design of Modern Houses

주서령\* / Ju, Seo-Ryeong

#### Abstract

In modern period, the houses are the most outstanding works by architects in which they develop their architectural identical theory and new color design concept has been established with the appearance of modern new art. This study is to summarize and analysis the characteristics of color design in 9 outstanding modern houses according to the historic artistic period, from 'arts and craft movement' to modernism. The result will re-analyze theory on the history of modern houses and support the identity of the modern houses.

The research method is based on book review and in detail, the analysis on color design were proceeded by comparison with color picture of interior space of the houses.

**키워드** : 근대주택, 색채, 색채디자인

## 1. 서론

### 1.1. 연구의 목적 및 배경

주택은 20세기 근대건축사의 확립 과정 속에서 순수한 주택건축으로서 즉 전용주거로서 새롭게 탄생되었다. 이것은 당시 근대의 거장이라고 일컬어지는 대표적인 건축가들이 주택을 모델로 하여 그들의 독자적인 건축론과 도시론을 실험한 결과이다. 근대 이전의 시기에 있어서는 건축가의 관심은 종교건축에 집중되어 있었으므로 근대에 있어서 건축가들이 그들의 대표적인 작품들로 주택건축을 제시하는 것은 획기적인 의식의 전환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순수한 주택건축의 등장은 근대건축의 산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한편 근대건축과 더불어 색채디자인의 새로운 시기가 출발하고 있다. 근대이전의 시기에 건축색채는 단지 그 건축을 구성하는 재료의 색이라는 '구성적 채색'의 이미지와 색채는 오랫동안 인간의 사상과 문화를 표현하는 상징적 의미를 갖는 '장식적인 채색'의 방법이 일반적이었다.<sup>1)</sup>

하지만 18, 19세기 과학, 예술 그리고 문학에 있어서 나타났던 새로운 혁명적 사고는 고전적인 미에 대한 회의를 갖게 하였다. 회화의 영역에 있어서도, 인상주의 화가들을 선두로 하여 색채의 새로운

가능성을 탐구하게 되었다. 색채는 단지 투시도라는 화면구조에 부가되는 표현적 요소라는 개념이 약화되었고, 화면의 새로운 공간을 구축하는 조형의 적극적인 도구로서 인정받게 된 것이다. 이러한 문화적 배경에서 근대건축의 색채는 상징적이고 구성적인 고전주의 색채로부터 벗어나 '색채혁명'적인 '자율적 색채'의 출현을 맞게 되었다.

본 연구는 근대건축의 특성을 대표하는 주택을 대상으로 하여 그들의 색채디자인 특성을 시대적·문화적 맥락에서 그 변화를 고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는 궁극적으로 근대주택사의 기술을 보완할 것으로 기대한다.

###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본 연구는 근대건축사와 색채디자인사에 관련된 문헌과 특히 관련 문헌에 수록된 색채에 대한 비평 및 서술과 그 공간의 칼라 사진을 대조·고찰하는 방식을 통하여 색채디자인 원리를 정리하였다.

연구의 범위에 있어서, 근대의 출발에 대하여는 논란이 있을 수 있으나 많은 근대건축사에서 정의하는 바와 같이<sup>2)</sup>, 연구의 출발을

1) 주서령, 건축공간의 색채구축성에 관한 연구, 서울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5. pp.7-20.

2) 펠스너(Nicolas Pevsner)의 근대디자인의 선형자들(Pioneers of Modern Design: From William Morris to Walter Gropius, Pelican Edition, 1982), 그리고 프램톤(Kenneth Frampton)의 근대건축(Modern Architecture : a Critical History, Thames and Hudson, 1980) 등 대표적인 건축사의 기술에서 근대건축의 시작을 모리스의 '예술공예 운동'로 정의하고 있다.

\* 정희원, 경희대학교 생활과학부 주거환경학전공 조교수

\*\* 본 논문은 1998년도 경희대학교 교보지원에 의한 결과임.

‘예술공예 운동’의 시기부터 시작하여 근대의 거장들이 대표적인 작품들을 산출하는 모더니즘의 시기까지를 일반적인 건축사와 장식사의 분류방식에 의거하여 예술공예운동, 아르 누보, 아르 데코, 데 스틸, 모더니즘의 시기로 분류하고 각 예술운동의 대표적 주택 중 그 색채디자인적 특성이 우수한 사례를 연구대상으로 하고 있다.

### 1.3. 연구의 제한점

색채의 역사적 연구에 있어서 가장 큰 제한점의 하나는 시간성이다. 현재 역사적 혹은 미적 가치를 갖고 보존된 많은 오래된 건물들은 오랜 세월을 지내면서 원래의 색이 퇴색되거나 재채색되었다. 자료의 레이어를 분석하는 방법 등 현대적 복원의 기술은 본연의 색에 대한 검증능을 가능하게 해준다. 하지만 본 연구는 복원 또는 보존의 개념보다는 문헌고찰을 통한 색채디자인사의 서술에 초점을 두고 있으므로 문헌에 서술된 표현을 대체적으로 인정하였다.

또한 연구의 제한점으로 색채표현의 문제가 있다. 같은 색이라 하더라도 민족, 성별, 감정 등에 따라 다른 색으로 인지될 수 있으며 그 색을 표현하는 용어 또한 다양하고 주관적이다. 하지만 색채표현의 객관성을 따르기 위해 먼셀이나 오스트발트의 색채시스템을 따른다면 정확한 색채이미지 전달이 용이하지 않다. 본 연구는 색채의 정확한 기록보다는 색채디자인의 이미지와 패턴을 정의하는데 큰 의미를 두므로 그 문화와 시대, 공간 상황에 적합한 용어 또는 문헌에 수록된 용어 그대로를 전달함으로써 공간의 색채이미지를 최대한 정확하게 연상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 2. 본론

### 2.1. 예술공예운동(Arts and Craft Movement)

예술공예운동(Arts and Craft Movement)은 순수미술과 응용미술을 동격으로 보는 관점에서 예술을 생활환경 속에 도입함으로써 예술의 범위와 영역을 넓혔다는 의미를 갖는다. 결과적으로 기계에 의하여 대량생산되는 값싼 생활도구들을 배제하고, 재료의 정직한 사용과 단순하고 건전한 직선적인 형태 그리고 자연으로부터 모티브를 따온 장식요소 등이 이 예술운동의 특징이다.

예술공예운동의 예술가들은 실내 분위기를 창출하는 방법으로 색채를 사용하였다.<sup>3)</sup> 이러한 시도는 실내장식의 역사에 있어서 매우 새로운 시도로서 이해될 수 있다. 후기 빅토리아 시기의 억압적이고 어둡고 우울한 분위기의 장식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 결과적으로 이보다 밝고 다소 자연스러운 색조들이 채택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 (1) 레드 하우스(Red House, 1859)

예술공예운동은 벽지와 패브릭 문양에 있어서는 매우 풍부한 패턴을 디자인하면서도 인테리어의 특성으로서 ‘백색 벽’(plain white

walls)을 주요한 실내요소로 채택하였다. 예술 공예운동의 대표적인 예술가인 모리스(William Morris: 1834~1896)는 “진정한 예술에 대하여 고심한다면 ‘다른 것이 아닌’ 빛과 그림자가 즐겁게 노닐 수 있는 백색을 선택해야만 한다.”<sup>4)</sup>라고 언급함으로써 그 동안 지급한 것으로 취급되어왔던 ‘백색’을 실내디자인의 중요한 요소로 도입한 의의를 가진다. 그와 동료인 건축가 웹(Phillip Webb 1831~1915)의 대표작품인 레드 하우스(Red House, Bexleyheath, England, 1859)의 외관은 붉은 벽돌의 향토적인 분위기를, 가파른 박공 지붕과 높이 치솟은 굴뚝들은 고딕을 연상시킨다. 그 내부는 전체적으로 백색 벽과 대비하여 붉은 벽돌의 아치와 다소 어두운 색의 목재 부재의 구조미가 돋보이며, 벽은 두터운 징두리벽, 모울딩, 액자 레일, 프리즈, 코니스와 같은 전통적인 목재장식요소들로 적절히 분절되었는데, 이러한 요소들은 다소 어두운 톤의 목재 천연의 색 그대로, 때로는 크림색을 띤 백색(creamy shade of white)으로 채색되었다. 기존의 빅토리아 풍의 실내에서는 일반적으로 목재장식요소들은 어두운 마호가니 색으로 채색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비한다면 모리스의 디자인은 매우 획기적인 것이었다. 실내에는 모리스가 디자인한 독특한 패턴을 사용한 소파, 커튼, 침구류와 벽지, 카펫이 놓여지는데 이것들은 남부 영국 전원풍의 정원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야생화의 나뭇잎과 새 또는 동물 등의 자연적 소재를 사용하고 있으며, 주조색으로는 자연의 색을 연상하는 녹색계열의 색(greens of every hue)<sup>5)</sup>을 주로 많이 사용하고 있으며, 청회색 계열(deep indigo blue), 황토색 계열(warm brown and ochre), 드물게는 자주색 계열(purple)도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색들과 대조적인 백색의 사용은 전체적인 효과를 밝게 해준다. 레드 하우스 이외의 다른 주택에서는 이외에도 칙칙한(muddy) 색들- 연보라색(mauve), 어두운 파란색(dark blue), 황토색(ochre) 심지어 검은색(black)도 사용되었다. 이러한 색들은 중세의 강렬한 색들에 비하면 ‘다소 바랜 색조(off-shades)’(모리스의 주장에 따르면 ‘dirty no colors’<sup>6)</sup>)들이다. 레드 하우스부터 시작된 모리스의 자연스러운(natural) 색채디자인은 40년 정도 이후에는 유럽 전역에 유행이 되기 시작하였으며 근대건축가들의 주요한 조형수법으로 정착된다.

### 2.2. 아르 누보(Art Nouveau)

예술공예운동에 이어 예술을 생활환경에 도입하려는 시도는 아르 누보(Art Nouveau)에서도 지속되어, 건축의 구조, 실내장식, 가구 심지어 문 손잡이까지 일체화하려는 토탈디자인의 개념이 확립되었다.

4)Wilhide, Elizabeth, 앞글, p.93에서 재인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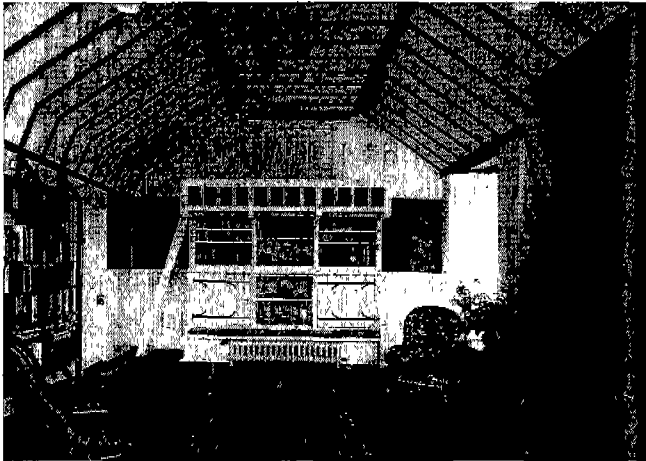
모리스가 의미했던 백색은 어떠한 색조도 띄지 않는 중성의 백색인데, 이것은 현재 전문가들 사이에서 ‘pastel base’ ‘decorator’s white’라고 통용된다. pp.94-96

5)yellowish green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데, 이 색에 대하여 모리스는 청중들 앞에서 지저분해 보이고 까다로운 yellow-green처럼 보이는 색에 대한 혐오를 언급하기도 하였다. Wilhide, 앞글, p.94. 올리브 그린(dull green)으로 채색되기도 하였다.

6)Wilhide, 앞글, p.94에서 재인용.

3)Wilhide, Elizabeth, William Morris Decor and Design. Pavilion, 1994, p.59

한편 그들 디자인의 근원은 자연으로, 실내에 도입된 색들은 잡자리,



<사진 1> 레드 하우스의 drawing room

공작새, 제비, 뱀, 말 등과 같은 자연의 팔레트에 기초하고 있다.

아르 누보의 엷센스는 선이라고 할 수 있다. 아르 누보는 직선, 직각의 규율을 거부하고 흐르는 듯한 곡선을 통하여 실내에 유기적인 생동감과 우아함을 부여하였다. 이러한 선의 아름다움이 강조된 실내공간에서는 장식적인 선을 제외하고는 색의 사용이 억제되었다.

아르 누보에서 색채의 사용은 문화영역별로 또는 디자이너별로 차이를 나타내는데 그 대표적 작품으로 다음의 세 작품을 들 수 있다.

(1) 메종 홀타(Maison Horta, 1898~1901)

아르 누보의 진원지로 간주되는 벨기에의 빅터 홀타(Victor Horta: 1861~1946)의 자택으로서, 이 메종 홀타(Maison Horta, Brussel, Belgium, 1898~1901)의 가장 큰 특징은 주택의 입구에서부터 시작하여 단숨에 4층까지 이르러 지붕의 천창까지 연결되는 즉 공간전체를 끊임없이 이어주는, 역동적인 금색의 곡선 장식이다. 이 이 금색의 장식은 들어서는 사람을 상층의 공간으로 자연스럽게 유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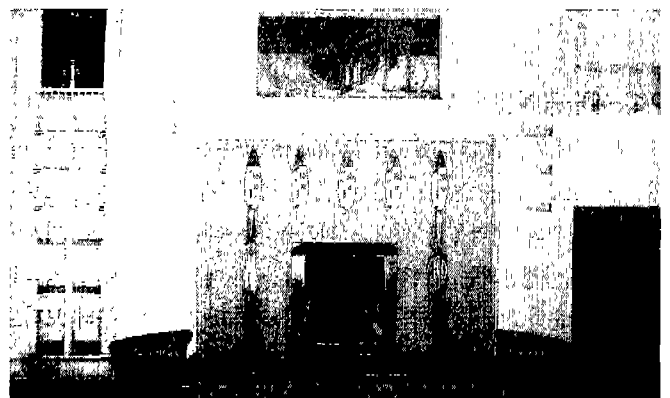
<사진 2> 메종 홀타의 계단실

이 장식은 계단의 난간, 기둥, 문고리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적용되었고, 다소 무거워 보이는 오크(oak) 재질로도 사용되어 난간

핸드레일, 가구부재, 문 등에 적용되었다. 유선형의 선형장식과 대조적으로 전체 벽면은 비교적 단순하게 처리되어있는데, 전체적으로 진홍색으로 처리되었고, 현관에서는 벽면을 수평적으로 분할하여 하부에는 진홍색, 상부에는 밝은 베이지색을 대비하여 사용하고 있다. 또한 천장에서부터 출발하는 꽃 문양은 밝은 회색으로 채색되어 있으며 금색으로 테두리를 강조하여 선적 요소로도 강조되고 있다. 이외에도 밝은 회색계열의 대리석과 바닥 카페트, 식당 천정과 바닥에 사용된 백색 타일 등, 공간은 전체적으로 옅은 색조로 처리되었다.

(2) 힐 하우스(Hill House, 1903~1904)

영국 글래스고우의 맥킨토시(Charles Rennie Mackintosh:1863~1928)의 작품에서는 모리스의 '백색 벽'의 미가 지속되고 있다. 이 작품에서 비로서 백색이 저급하고 하류층의 디자인이란 개념에서 탈피하여 진보적인 정신으로 연상되어지기 시작하였다. 그의 실내공간에서 대륙형 곡선의 미는 절제되었으며 오히려 수직적 그리드의 미가 추구되고, 자연의 생물 형상을 양식화와 백색 패널이 특징적이다. 검은색을 주 색조로 하여, 회색과 백색으로 대비시킨 현관 홀, 식당, 도서관을 제외하고는 주요 실들의 벽면은 백색으로 처리되고 있으며, 바닥은 연회색의 카페트 또는 밝은 톤의 나무이다. 침대, 서랍장, 문 등 실내의 주요 요소는 백색이며 때로는 검은색의 프레임을 가진 가구와 테이블을 사용하고 있다. 액센트 색으로는 장미 분양을 양식화한 꽃에-벽난로의 장식, 커튼, 패브릭 종류, 벽지의 문양, 가구의 장식- 옅은 보라색(lilac, mauve), 진홍색(salmon pink), 녹회색(grey green), 짙은 남색(indigo) 등과 같은 파스텔 톤이 채색되었다. 이러한 색채디자인에 대해서 칼라스(E.B. Kalas)는 'white and



<사진 3> 힐 하우스 drawing room의 벽난로

violet'의 공간으로 정의하고 있으며,<sup>7)</sup> 프램톤은 "간결하고 화려한 보라색과 은색"으로 맥킨토시의 양식을 정의하고 있다.<sup>8)</sup> 전체적으로 맥킨토시의 실내공간은 영국 초원의 수수하고 은은한 자연을 연상시키고 있다.

(3) 카사 바틀로(Casa Battlo, 1904~19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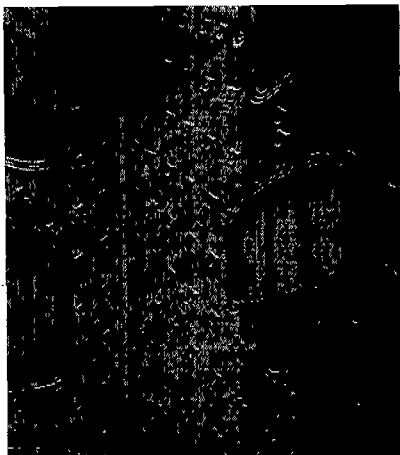
7)Frampton, Kenneth, A Critical History of Modern Architecture, London: Thames and Hudson Ltd, 1980, p.74에서 재인용

8)Frampton, Kenneth, 앞글, p.76

아르누보의 독특한 건축가는 스페인의 가우디(Antonio Gaudi: 1852~1926)이다. 그의 작품은 아르 누보의 곡선적인 미를 건축의 공간에 부여하여 바닥, 벽, 천정 때로는 개구부 등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유기적인 공간을 창출해내었으며, 이 공간에 깨진 색타일 모자이크를 이용하여 요소들의 유기적인 결합관계를 강조하는 효과를 주었다. 그의 벽화나 스테인드 글라스 작품에서는 매우 다채장식(polychromy)<sup>9)</sup>적인 화려함을 엿볼 수 있다.

카사 바틀로(Casa Batllo, Barcelona, Spain, 1904~1906)의 외관에서 보여지는 색채대비는 사암자체의 색을 노출시키는 저층부와 채색타일을 사용한 고층부, 그리고 채색기와를 사용한 지붕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붕의 기와는 비단벌레 빛깔의 물고기 비늘처럼 처리되어 있으며, 푸른색에서 갈색까지 여러 가지 다양한 색으로 혼합되어 있다. 또한 벽면의 타일도 기와와 같은 색조를 띄고 있는데, 그 표면이 빛나도록 마감되어져 바탕을 표면과 같은 색의 외관을 햇빛이 부서지는 듯한 찬란한 이미지로 표현하였다. 이러한 처리방식은 건축물에 있어 색과 빛을 완벽하게 조화시킨 작품으로서 지중해 사람들의 타고난 정서를 드러냈다고 할 수 있다.

주택내부에서는 선형 목재장식, 문과 창, 나무 바닥재, 2층 홀 벽난로 주변에 사용된 타일 등에 적용된 어두운 밤색 톤을 제외하고는, 전체적으로 벽면과 천장에는 밝은 계열의 자연스러운 베이지나 회색기를 사용하고 있다. 중정 벽면을 장식하는 타일의 색은 백색, 회색, 푸른색을 모자이크 식으로 혼합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이 때 푸른색이 저층으로 내려올수록 얼어진다. 이는 빛에 의한 시각차를 조절하기 위한 수법과 중정의 높이에 대한 강조를 위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sup>10)</sup> 또한 창에 사용된 색유리는 푸른 계열에서 선택되어 초록색, 파란색, 보라색으로 다양한 파스텔 계열의 색조를 띄고 있다.



<사진 4> 카사 바틀로의 계단실

9) 다채장식(polychromy, 대체색, 다색성, 색채효과)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건축물의 내외부를 불문하고 장식적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동일 평면위에 다양한 색을 입히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고대건축이 다채장식은 신교학적 연구의 진전과 함께 낭만주의적 경향이 서서히 나타나는 1830년대를 중심으로 근대적 관점에서 재해석된다.

10) PA(Pro Architect) 세계 건축가 시리즈, -안토니오 가우디 편, 건축세계 002, 1997

### 2.3. 아르 데코(Art Deco)

1920년대 초기, 강렬한 무대장치와 의상을 소개한 러시아 발레(Sergei diaghilev's Ballet Russes)에 영감을 받아 시작된 아르 데코(Art Deco)는 건축, 실내디자인, 장식예술 뿐 아니라 패션, 영화 등 모든 생활 영역에서 근대적 문화를 형성하였다. 처음에는 가벼우면서도 우아한 예술의 새로운 모색으로부터 출발하였으나, 곧 근대에 술가들에게 기계시대의 속도와 강도를 표현할 수 있는 즉 “근대적인(moderne)” 이미지를 표현할 수 있는 새로운 도구가 되었다.

(1) 사아리넨 하우스(Saarinen House, in the Cranbrook Academy of Arts, 1928~29)

1924년 핀란드 건축가인 엘리엘 사아리넨(Eliel Saarinen, 1873~1950)은 블룸필드 힐즈의 고등학교와 예술학교의 매스터 플랜을 맡게 되었고, 이 후 이 학교의 책임자로서 일하게 되자 이 곳에 자신의 자택인 사아리넨 하우스(Saarinen House, Bloomfield Hills, Michigan, 1928~29)를 디자인하게 되었다.

실내색채디자인에서 대표적인 배색은 브라운, 크림, 녹색, 회색, 오렌지, 회색, 검정 등의 조합인데 거실과 응접실에서는 주로 밝은 녹색과 옅은 브라운 계열이 주조색으로 사용되었으며, 식당과 서재 결의 거실에서는 회색, 짙은 브라운, 오렌지, 다소 어두운 녹색 등이 주조색으로 사용되었다. 색채의 선택과 더불어 아르 데코 디자인을 특징지을 수 있는 것은 근대적인 재료의 채택이다. 목재의 사용에 있어서도 흑단 또는 래커칠의 사용으로 광택있는 표면의 목재를 선택하였으며, 알루미늄, 크롬, 황동 등의 사용이 특징적이다. 사아리넨 부인이 디자인한 텍스타일과 카펫 디자인에 있어서도 회색, 검은색, 녹색 그리고 흐린 붉은색을 주요 색채로 사용한 첨예한 기하학적인 패턴이 돋보인다.<sup>11)</sup>



<사진 5> 사아리넨 하우스의 식당

11) Sternau, Susan, A., Art Deco : Flights of Artistic Fancy, N.Y.: Smithmark Pub., 1997, pp.45-51.

## 2.4. 데 스틸(De Stijl)

20세기를 위한 새로운 디자인 어휘를 찾아내려는 심각하고 사려 깊은 노력은 네덜란드에서 시작되었으며, 이 움직임을 데 스틸(De Stijl)이라고 부른다. 이 예술 운동은 추상예술의 발전과 맥락을 같이 하여, 전통적인 자연의 사실적 재현으로부터 탈피하고 자연을 최소한의 기본적인 요소들로 압축하여 이 요소들의 순수한 관계성의 미를 추구하였고 그 결과 화면에는 극도로 축약된 검은 선과 빨강, 노랑, 파랑의 사각 색면들의 관계가 형성하는 새로운 공간이 구축되었다.

몬드리안(Piet Mondrian; 1872~1944)과 반 두즈버그(van Doesburg; 1883~1931)가 발전시킨 데 스틸의 조형적 색채 이론은 실내디자인과 건축 등 점차 3차원의 공간조형으로 실험되어져 갔다. 데 스틸 예술가들의 실내디자인에서 색채의 선택은 단지 검은색, 회색, 백색과 작은 면적의 빨강, 노랑, 파랑의 순수한 원색으로 제한되었다. 데 스틸의 디자인에서는 어떠한 색을 사용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색면을 어떠한 공간적 질서(관계성) 속에서 위치하고 배분하는가가 중요하다. 즉 “비대칭의 균형”을 형성하기 위한 치밀한 관계성의 실험 결과로 실내공간 속의 모든 요소들의 위치와 크기가 결정되었으므로 사소한 의자 위치의 변경도 용납되지 않는 순수 조형적인 실내공간이 추구되었다.<sup>12)</sup>

### (1) 쉬뢰더 하우스(Shoöder House, 1924)

쉬뢰더 하우스(Shoöder House, Utrecht, Holland, 1924)는 가구 디자이너였던 리트벨트(Gerrit Rietveld; 1888~1964)가 데 스틸의 예술이론가들과의 교류를 통하여 그들의 색채조형적 건축의 이론을 치밀하게 적용한 결과물이다. 그 색채디자인적 수법에서는 차이가 있지만, 쉬뢰더 하우스는 색을 과감하게 사용하는 데 스틸의 회화이론에 의거하여 원색을 주택에 도입한 매우 기념비적인 건물로 평가받고 있다.

쉬뢰더 하우스의 색채디자인은 외부와 내부에서 다른 방법론을 채택하고 있다. 외부에서는 그의 <베를린 의자>에서와 같이 건물을 구성하는 면재(독립된 벽 판들)들을 백색과 세 단계의 회색으로 채색하고 이러한 요소들의 직교적 관계 때로는 평행 접합 방식<sup>13)</sup>에 의거하여 공간을 구축하였다. 이때 단지 배란대를 지지하는 기둥이나 들보 또는 창틀의 선재만을 원색으로 처리하여 무채색의 견고한 불륨에 활력을 부여하고 있다.

반면에 실내색채디자인은 벽면, 가구, 구조디테일에 이르기까지 통합되고 일관된 색채시스템으로 조직되어있다. 우선 공간디자인은 1층과 2층이 차별적으로 계획되었는데, 1층은 폐쇄적인 벽으로 방마다 분리되었고, 2층은 간막이 벽을 열면 원룸이 되도록 개방적으로

계획되어져 있다. 이러한 평면계획은 데 스틸의 ‘개방적 평면’의 이상을 적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개방적 내부공간은 천장을 제외하고는 바닥, 벽면, 가구에 이르기까지 몬드리안의 회화처럼 빨강, 노랑, 파랑의 원색 색면들이 공간전체에 동등하게 분포되는 ‘비대칭적 평형’을 이루어내고 있다. 이 때 실내의 색면들은 항상 다른 색면들과의 공간적인 관계를 고려하면서 그 크기와 색채, 위치가 결정된다. 색면들은 항상 상호 직교적 관계를 유지하며, 그 사이에는 보이드의 공간이 남겨지게 되며, 결과적으로 리트벨트가 의도한 ‘개방 대 폐쇄’<sup>14)</sup>는 대립적 공간으로 완성되었다.



<사진 6> 쉬뢰더 하우스의 2층 자녀실 전경

## 2.5. 모더니즘(Modernism)

모더니즘적 실내디자인의 트레이드 마크는 ‘백색 벽’일 것이다. 이 미 예술공예운동 시기, 모리스에 의하여 시작된 바 있는 ‘백색 벽’은 근대건축에서 필수적인 요소로 정착되었으며, 후에 국제주의 양식(international style)이라고 불리우는데, 많은 유럽디자이너의 근대 작품을 묘사하는 공통적인 점이 된다. 이러한 근대주의적 양식에서는 백색이 주조색으로 사용되고, 작은 면적의 순수한 원색이 사용되었다. 물론 원색 이외에 다른 색들도 종종 나타났는데, 유럽의 근대주의적 작품들이 색의 사용에 있어서 특별한 제한점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다. 실내공간에서 색이 사라지게 된 것은 아마도 흑백 사진에 익숙함 때문이 아닌가 추정되기도 한다. 한편 이시기에 녹색의 살아있는 식물이 실내공간의 일반적인 요소로 나타나기 시작하였다.<sup>15)</sup>

### (1) 빌라 사보아(Villa Savoye, 1929)

이러한 모더니즘적 색채를 정착시킨 대표적인 건축가는 르 코르뷔제(Le Corbusier; 1887~1968)이다. 그에 따르면 벽에 대한 용납할 수 있는 유일한 처리는 백색으로 채색하는 방법이며, 이러한 백색의 건축물이 잘 감상되기 위해선 잘 조절된 다채색(polychromy)이 있어야 한다는 이론을 가지고 있었다.

그의 대표적인 빌라 사보아(Villa Savoye, Poissy, France, 1928~

12)주서령, 게리 리트벨트의 색채조형성에 관한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지, 제9호, 1996.

13)리트벨트의 벽체구축방식(직교적 관계, 평행 접합방식 등)은 데 스틸의 예술이론의 영향과 수학의 ‘데카르트 좌표 시스템’을 응용한 결과물로 모든 요소들이 상호관입과 같은 실제적으로 접합한 것처럼 보이는 방식이 아닌, 각 부재들이 한 측면만을 접점으로 하여 상호 직교 교차하면서 접합하는 방식이다. 주서령, 앞글, 1996, pp.50-51

14)주서령, 앞글, 1996, p.55

15)File, John F., Color in Interior Design, McGraw-Hill, 1997, pp.213-214

31) 실내의 세심하게 선별된 벽면들은 녹, 적, 청, 갈(채도가 높은 blue, turquoise, orange, brown) 등으로 채색되어져 있는데, 이 때 공간을 구성하는 벽면 중 어느 한 벽면만을 채색하여 인접한 백색의 벽과 대비를 이루는 것이 특징적이다. 즉 공간의 특정 색면 만을 독립적으로 채색함으로써 그 공간을 규정하고 공간적 분절을 강화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이에 반하여 외부 입면은 단순히 백색과 녹색으로 나뉘어져 있다. 전체적으로 백색만 눈에 띄지만 가까이 접근하면 전면에서 후퇴한 1층 부분은 녹색으로 채색되어있다. 녹색은 그에게 어두운 색으로서 백색의 면을 더욱 드러내기 위하여 사용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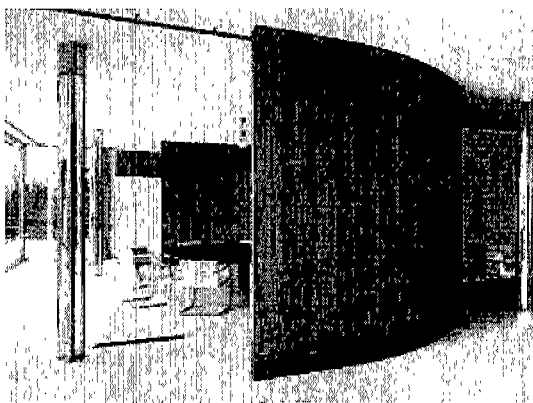
사보와 주택에서는 관찰자의 1층에서 2층, 옥상정원에 이르는 공간적 이동을 함에 따라 채색된 면과 채색되지 않은 면이 교차됨으로서 시각적 풍요로움을 경험하게 된다. 이것은 '건축적 산책로'<sup>16)</sup>라는 개념으로 설명되는데, 공간에 배치된 색면이 인간의 시각을 사로잡음으로써 실재적인 운동을 유발할 수 있다는 면에서 색채의 역동성으로 설명될 수 있다.



<사진 7> 빌라 사보와의 거실전경

(2) 투겐타트 하우스(Tugendhat House, 1938~39)

모더니즘의 또 한가지 특성은 기계시대의 산업화된 재료의 표현 일 것이다. 미스 반 데르 로에(Mies van der Rohe:1886~1969)의 투겐타트 하우스(Tugendhat House, Brno, Czechoslovakia, 1928~



<사진 8> 빌라 투겐타트의 식당

16)정진국, 색, 건축: 르 코르뷔지에, 대한건축학회논문집, 1994.10.

1930)는 인위적인 채색의 방법을 탈피하여 석재와 철재, 유리가 주는 근대적인 이미지를 완성하였다. 단아하고 따뜻한 이미지를 주는 오크스 대리석 파티션, 짙은 나무색의 일록 무늬가 있는 반원형 목재(macassar) 파티션, 아이보리색의 리놀륨 바닥재, 베이지톤의 울러그와 실크 커튼, 크롬도금한 십자형 철제 기둥, 크롬도금한 강철봉으로 된 가구들('Brno Chair'와 'Barcelona Chair')은 공간의 액센트로서 훌륭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sup>17)</sup>

(3) 빌라 마레아(Villa Mairea, 1938~39)

스칸디나비아 지역에서 큰 성공을 한 모더니즘적 디자인은 지역적 풍토와 민족성에 기반을 둔 독자적인 조형으로, 유기적인 재료(전통적인 목재, 붉은 벽돌, 석재, 등 등) 특히 자연 나무재를 광범위하게 사용하였으며 의자 제작에 있어 나무를 자연적인 습기로 구부리는 기법을 개발하여 독창적인 구조미와 따뜻한 분위기로 세계시장에서 호평을 받았다. 스칸디나비아 디자인은 자연 티크 원목의 따뜻한 브라운 색과 이 지역에서 역사적으로 선호되었던 색인 백색으로 특징지워지며, 이것을 '데니쉬 모던(Danish Modern)'<sup>18)</sup>이라고 부른다. 지방 문화와 자연적 소재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가졌던 알바 알토(Alvar Aalto: 1898~1976)의 작품 빌라 마레아(Villa Mairea, Noormarkku, Finland, 1938~1939)에서는 백색의 벽과 자연스러운 목재와 바닥재, 프레임들, 거실 상부의 목재 루버 천장과 백색으로 채색된 벽돌 벽, 나무소재의 가구들, 검게 칠해진 원형기둥에 달려진 목재와 서재와 피아노 실을 분리하는 벽체의 상부에 사용된 거울과 백색 루버 형태의 장식물은 공간의 액센트 역할을 담당한다. 이 주택은 자연 나무색과 백색과 함께 강렬한 톤의 색들을 생기 있고 창조적으로 사용한 것이 특징이다.



<사진 9> 빌라 마레아의 거실

3. 결론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면서 근대주택의 실내색채디자인의 특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17)바르셀로나 파빌리온(Barcelona Pavillion, Barcelona, Spain, 1929)

18)Pile, John F., 앞글, p.215

첫째는 색채의 단순성이다. 근대 색채를 대표한다면 ‘백색’이라고 할 수 있다. 과거 ‘백색’은 저급하고 하류층의 디자인이란 개념이었지만 모리스로부터 시작하는 ‘백색의 벽’은 근대주택 실내디자인에서 필수적인 요소로 정착하였으며, 이후 국제주의 양식의 기본적 요소로 널리 활용된다.

또한 근대주택의 색채는 고전건축의 상징적이고 인위적인 색채를 탈피하여 자연스러운 색채 즉 ‘재료의 솔직함’을 선택하게 됨으로써 천연 목재나 벽돌과 같은 재료색을 실내디자인의 요소로서 도입하였다. 재료의 ‘솔직함’은 모리스로부터 시작되는 천연 목재와 벽돌의 실내 사용, 알바 알토의 자연적 소재의 활용으로부터 시작되었으며, 지금까지도 실내디자인의 중요한 수법이다.

이와 더불어 데 스틸의 디자인에서는 원색의 사용도 눈에 띄는데 이는 근대화화의 추상성과 병행되는 것으로 근대적인 공간질서와 정확성을 강조하기 위해 단순한 색과 형태로서 기호화하는 개념을 대표한다.

둘째는 근대적인 재료색의 표현이다. 기계문명의 빠른 변화와 더불어 실내디자인에도 유리, 철, 금속 등의 ‘산업 재료’가 도입되었다. 이것은 미스 반 데르 로에의 성과라고 평가할 수 있으며, 근대 이후 하이테크 디자인으로 이어진다. 아르 데코의 흑단 또는 래커칠을 한 광택있는 표면의 목재의 사용도 방법은 다소 다르나 재료 처리 기술의 변화와 더불어 추구된 근대적 기술의 표현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재료들은 검정색, 회색, 은색의 무채색을 띄며 광택을 가짐으로서 새로운 기계미학의 미를 예고하고 있다.

셋째는 색채의 상징 표현적 특성이다. 근대 건축가들은 색채의 새로운 조형적 능력을 탐구하였지만 여전히 색채는 강한 심리적인 연상성을 가진 요소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었다. 특히 가우디에게 색채는 유기물들과 자연현상을 재현하는 중요한 수단이었으며, 아르 누보의 실내공간에 도입된 색들도 자연의 팔레트에 기초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넷째, 근대주택의 실내디자인에 도입된 색채특성의 또 다른 개가는 색채의 역동성이다. 쉬뢰더 하우스에서는 관찰되지 않지만 데 스틸의 실내디자이너들은 색채의 강한 상대성의 원리에 의거하여 공간에 배치된 색면의 강도에 따라 인간의 시각을 사로잡음으로써 실제적인 운동을 유발할 수 있는 ‘시공간’을 추구하였다.<sup>19)</sup> 한편 르 꼬르뷔제의 주택에서는 관찰자의 공간적 이동에 따라 채색된 면과 채색되지 않은 면들이 교차함으로써 시각적 풍요로움과 ‘건축적 산책로’<sup>20)</sup>를 제공하였고, 메종 홀타의 금색의 선 장식은 공간 전체의 흐름을 유도하는 중요한 장치이다.

결론적으로 근대주택의 색채디자인은 근대주택 디자인의 선형성을 확보하는 적극적 요소로서, 고전의 미를 넘어선 새로운 미의 추구를 위하여 색채의 단순성, 추상성 때로는 자연성, 상징성, 역동성을 추구한 것으로 결론지을 수 있다.

19) 주서령, 앞글, 1995, pp.157-159, pp.226-234

20) 정진국, 앞글, pp.7-10.

### 참고문헌

1. Wilhide, Elizabeth, William Morris :Decor and Design, Great Britain: Pavillion Books, 1994
2. Shimomura, Junichi, Art Nouveau Archi -ecture: Residential Masterpieces 1892-1911, Great Britain: Academy Edition, 1992
3. Mies van der Rohe: Architecture and Design in Stuttgart, Barcelona, Brno, Virta Design Museum, SKIRA, 1998
4. Gilliat, Mary, Period Style, london: Little, Brown company, 1990
5. Sternau, Susan, A., Art Deco, Flights of Artistic Fancy, N.Y.: Smithmark Pub. 1997
6. Pile, John F., Color in Interior Design, McGraw-Hill, 1997
7. Frampton, Kenneth, Modern Architecture : a Critical History, London: Thames and Hudson, 1980
8. Pevsner, Nikolaus, The sources of Modern Architecture and Design, N.Y and Toronto: Oxford University Press, 1979
9. 정진국, 색, 건축 : 르 꼬르뷔지에, 대한건축학회논문집, 1994.10.
10. 주서령, 게리 리트벨트의 색채조형성에 관한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지, 제9호, 1996
11. 주서령, 건축공간의 색채구축성에 관한 연구, 데 스틸과 러시아 아방가르드를 중심으로, 서울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5

<접수 : 2000. 4. 28>